“승보(僧寶)여, 희유의 공양 받으소서!”

조계종부산聯, 제6회 성도재일기념 승보공양대법회


1월 8일 조계종부산연합회의 승보공양대법회에 참여한 불자들은 승보의 의미를 되새기고 불 · 법 · 승 삼보를 위호할 것을 다짐했다.

성도재일 맞아 승보 의미 전달
삼보 위호하는 불자될 것 다짐
신임 회장 심산 스님 취임식도
“재가 안거 정착 노력할 것”

대중들은 지극한 마음을 담아 스님들께 공양물을 올렸다. 성도(成道)의 참 진리를 잇는 승보(僧寶)에 대한 극의로 법회는 환희 그 자체였다. 공양을 올린 후 초를 밝힌 대중에게는 꽃비가 내렸다. 대중을 향해 흩뿌린 꽃잎에는 시방세계 중생을 위해 깨달음의 법을 회향하겠다는 스님들의 의지가 담겼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심산)는 1월 8일 해운대 벡스코 제2전시장 3층에서 ‘승보공양대법회’를 개최했다. 승보공양대법회는 성도재일을 맞아 승보의 의미를 되새기고 불 · 법 · 승 삼보를 위호하는 불자들로 거듭날 것을 천명하는 자리다. 아울러 전법에 매진해 깨달음의 법을 널리 펼치겠다는 스님들의 서원을 굳게 다지는 시간이다.

먼저 금강경을 독송하는 불자들의 독경 소리로 시작했다. 이어 조계종원로의원 정관 스님, 전 조계종 교육 원장 무비 스님, 통도사 선덕 법산 스님, 前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비롯해 120여명의 조계종 스님들이 법석에 올랐다. 자리에 참석한 박대성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과 신도 단체 및 각 기관장 단체장들은 공양물을 스님께 올렸으며 1,000명의 대중들은 함께 합장해 마음을 모았다.

스님들은 덕담으로 화답했다. 정관 스님은 “온 국민이 화합하는 한 해로 덕을 이루고 만드는 시간이 되자”고 말했다.

무비 스님은 “철저한 자기 수행과 세상에 널리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것으로 몸과 목숨을 바치며 살아가는 것이 스님들의 본래 모습이며 자세”라며 “스님이 스님다우면 불법은 저절로 존중된다. 오늘 이 공양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잘하라는 경책으로 삼고 기쁘게 여기겠다”고 전했다.

법산 스님은 “우리 모두 오늘의 이 정성 어린 공양 공덕이 헛되지 않게 출가의 초심으로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지니자. 선정과 지혜 부지런히 닦고 석가모니 부처님 같이 금강반야를 깨달아 모든 생명과 기쁨을 함께 하는 서원을 굳게 다짐하자”고 독려했다.

혜총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으로 복을 얻고 행복한 삶을 갖길 바란다”며 “생로병사를 벗어난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후 재가불자들은 발원문을 통해 “부처님의 큰 가르침으로 무명에서 헤매는 모든 중생들이 지혜의 등불을 밝혀 하루를 살아도 바르고 굳세게 살 수 있도록 힘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서원했다. 아울러 “청정한 승가와 삼보를 예경하고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불성을 꽃피우며 진흙 속에서 피어난 백련과 같이 온 세상에 깨우침의 향기가 피어나도록 하겠나이다”며 다짐했다.

한편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승보공양에 앞서 회장 이 · 취임식을 개최했다.

前 회장 수진 스님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 5년간의 중요 활동을 설명하며 “법대로 수행하고 법대로 세상에 법을 전하는 그 의미, 그것은 진세토록 거울인 것”이라며 “오늘 새롭게 취임하는 심산 스님은 현실적 감각과 시대의 흐름을 잘 인지하는 스님으로서 향후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의 행보에 빛살이 넘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3대 신임회장 심산 스님은 “조계종 종헌과 종법을 준수하며 수행과 전법, 그리고 자비 실천의 정신으로 종지종풍을 선양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화합과 평화에 기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며 “앞으로 재가 안거 수행 정착과 전법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불교발전과 불법홍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양재생 조계종부산연합회 신도회장, 서병수 부산시장, 백종헌 부산시의회 의장,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 박대성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은 축사로 뜻을 전달했다.

아울러 조계종부산연합회는 부산시장상 개인부문에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과 단체부문에 관음사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을 수여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다.

하성미 기자

대한불교조동종, 신년하례법회 봉행



(사)대한불교조동종총무원은 1월 10일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자리엔 종정 심월 스님, 부종정 원봉 스님, 승정원장 보경 스님, 총무원장 대은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행사는 대은 스님의 신년사, 종회의장 해륜 스님의 발원문 낭독 등 순으로 진행됐다.

대은 스님은 “지난 한 해 돌이켜보면 탐욕과 다툼, 불통으로 인한 걱정과 시련의 시간이었다”며 “우리는 고통 받는 사람과 함께하고, 평화를 통해 탐 · 진 · 치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두가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한다. 수행자의 깨어있는 정신으로 이끌어나가자”고 당부했다.

또한 조동종은 연수교육에서 실시한 논문법계고시에 합격한 천관 스님, 범일 스님, 송담 스님께 임명장을 수여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헌 옷으로 지은 ‘희망새싹 장학금’

NGO 희망씨앗월드웨어, 장학기금 수여식



불교 NGO 기관인 희망씨앗월드웨어가 헌 옷을 판매해 조성한 기금으로 장학금을 마련해 따뜻함을 전했다.

NGO 희망씨앗월드웨어(이사장 범국, 이하 희망씨앗)는 1월 6일 경주 동국대 100주년기념관 화백홀에서 NGO 희망씨앗월드웨어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사진〉

희망씨앗은 티베트 난민들을 지원하고자 2015년 경주에서 창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인도 다람살라에서 유학한 이사장 범국 스님이 난민들의 현실을 도와 줄 방법을 찾으며 시작한 단체다. 현재 국내 봉사자 10여명이 동참하고 있다. 경주에 판매처를 두고 국내 헌 옷과 모자, 가방 등을 기부 받아 판매하고 있으며, 2월 울산 호계 지역으로 위치를 옮기고 새 출발할 예정이다.

희망씨앗은 이날 불교 문화대학 재학생 5명에게 총 2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범국 스님은 “어려운 환경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10년 전부터 접촉한 난민들과 접촉하고 어려운 실정을 직접 봤다. 도움 줄 수 있는 많은 방법을 기획 중”이라고 말했다.

범국 스님은 현재 동국대 경주 캠퍼스 티베트대장경 역경원에서 티베트대장경 역경사업을 위한 연구원으로 티베트어 한글 표기안과 티베트 교재발간,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NGO 희망씨앗월드웨어를 정식 비영리 기관으로 등록하고 국내 복지 활동과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대한불교원효종, 재도약 발판 마련 ‘다짐’

1월 9일 신년하례법회 봉행

원효 스님의 ‘상생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대한불교원효종(종정 정광) 총무원(총무원장 우석)은 1월 9일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화합의 장인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정 정광 스님과 원로원장 창해 스님, 자문위원장 금봉 스님, 종회의장 태일 스님, 총무원장 우석 스님, 규정원장 성암 스님, 총무부원장 보원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종정 정광 스님은 “천년의 원효 사상을 본받아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수행정진하여, 정유년 새해에는 오로지 부처님처럼 대장부의 삶으로 힘차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원로원장 창해 스님과 자문위원 금봉 스님은 “원효종주 보살도를 따라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이날까지 종도 모두가 화합해 나감에 감사하다. 앞으로 더욱 힘차게 수행정진하자”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우석 스님은 “오늘날 혼란한 정세와 어려운 경제로 인해 모두의 마음이 편치 않더라도, 마음가짐 하나로 모든 것이 달라지고 변할 수 있다. 지극한 정성과 진실한 마음을 찾는다면 밝은 해처럼 둥글고 모남 없는 화합과 상생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 한 해는 종도 간 화합과 발전을 이루는데 주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대한불교 원효종은 1월 9일 2017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한편 경북 경주시 충현로에 총본산을 둔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은 오는 6월에 종회의원 선출과 선거인단을 구성해 10월 총무원장을 선출하고, 11월 총무원장 이 · 취임을 가질 예정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새싹불자들 “스님들 삶 배우고 싶어요”

홍법사, 어린이 작심단기출가



겨울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스님들의 삶을 체험하고 지혜를 배우기 위해 사찰을 찾았다.

홍법사(주지 심산)는 어린이 작심단기 출가를 1월 11~17일 개최했다.〈사진〉 어린이 20여명은 입재식서 작심단기출가 기간 동안 부처님의 자비심을 배우며 행실을 맑히는 깨끗한 정진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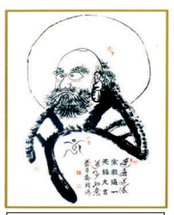
홍법사는 출가 기간 동안 수심자경문을 통해 한자를 배우며 발우공양과 자비명상 등 수행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한 푸드아트테라피, 전래놀이 등 다채로운 활동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임윤정(청학초3) 학생은 “부모님께서 스님들은 어떤 삶을 사시는지 잘 보고 배우라 하셨다”며 “좋은 친구도 만나고 훌륭한 가르침도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태양의 꽃 우담발화가 핀 부평 용천사. 부처님 탄생이래 삼천년에 한번 피는 불사조 불사신 불광도량 달마조계종 부평 용천사 도량에 태양의 꽃 우담발화가 되어 성스러운 조화를 이루어 지구촌 이그러진 법도와 꺼져가는 민족의 얼과 혼이 일체 종교가 하나로 되어 만년만법을 다스릴 능력자 성인 도인 진인 선녀 신선들에게 태양의 무량자로 온 생명을 구하는 도량으로 하강하신 우담발화 병겁이 시작되는 2014년 가보세 가보세 사부작 사부작 병신 정유년에는 병든 닭 병든닭 무술년에 무수한 생명이 죽어가는 시대를 다스릴 초능력 도통군자 일류스승되는 대용맹정진 대법회

부처님께서도 루안통을 하지 않은 제자들은 내 제자가 아니라 하셨으며, 오통은 누구나 하지만 육통자재인 천안통으로 비구 비구니 보살 대중들도 성불도통 하는 것이고 진광 빛을 보지 못하기에 업에 쌓여 선교, 불교, 유교, 도교에서도 찾는 천궁통 철야기도 대용맹정진 양력 2017년 2월 1일 ~ 2일 무박 2일 전국경향각지 종교를 초월 도통군자 저변확대는 물론 꺼져가는 이그러진 법도를 바로세울 인제 도인 선녀 지망생들에게 이소식을 전하며 그 누구도 주문이 없으므로 말법 병겁에는 도를 통한자만이 일체조상 빙의 잡신 귀신 천신 만신등을 천도 해원 시킬수 있으므로 천하대세를 아는 자는 단한번의 수행으로도 각종질병과 초상상문 이사주당 혼인주당 각종 귀신 잡신에 빙의된자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 의통능력을 얻어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하는 대 용맹 정진으로 진광 진법 빛의 신통조화능력을 얻어 신인도통, 해원상생, 수명연장, 부귀장수, 신선문화, 복지창달로 인류를 구할수 있는 강력한 초능력 얻는 무박 2일 천하대법에 입문하시어 그간 방황하던 종교수행에 신선도인, 성현, 선녀, 지상신선으로 해원신, 조화신, 보응신을 부리고, 단번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진광 진법으로 일류스승의 도를 통하여 볍겁에 전인류를 살리고, 만인을 제도하는 만사형통 모든 귀신 잡신 천신 만신을 부리는 천하제일의 도통군자 되는 법이고 현재 부리고 있는 각종 신들은 자기대에서만 부리고 자손으로 가지않는 해원 상생법으로 계론, 시론, 생천론으로 해원상생하는 법이니라.


거부장자로 사는 달마구입처 : 태일 02)821-6622 010-3239-3110




환성 무상사 태일대종사

■ 입 제 일 : 2017년 2월 1일(음력 1월 5일) 수요일 오후 9시
■ 해 제 일 : 2017년 2월 2일(음력 1월 6일) 목요일 오후 9시 무박 2일 해시
■ 동 참 비 : 기도 및 교재비 10만원(계좌번호 : 농협 029-01-1678866 곽한영)
■ 준 비 물 : 필기도구, 세면도구 무박 2일
■ 상담전화 : 032)502-6625, 6629 / 010-9292-3110
■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204-4번지 부평시장입구 천지공사 용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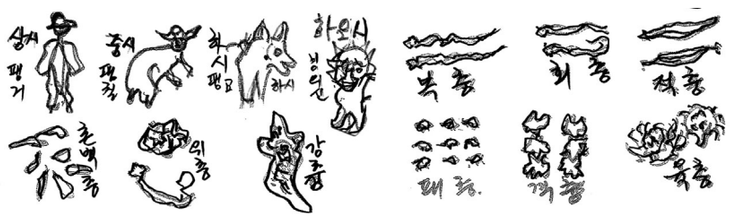
정유년 입춘 불공을 왜 하여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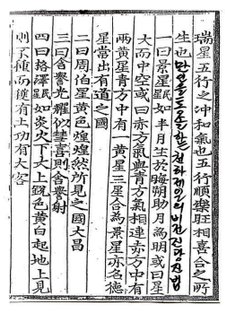
사람에 병은 어디서 오는가를 알아야 장수하고 방편도 하는 것이 입춘기도보다 중요한 기도가 없으며 입춘일부터 사람을 괴롭히는 삼시구충과 각종 빙의신, 모태유산으로 탄생못한 혼들이 입춘일전부터 입춘날에 오장육부와 머리골, 뼈골까지 파고 들어가 각종질병을 발생 죽고사는 병을 만들어 괴롭히는 것이고, 특히 삼재나 삼충이들면 상시구충들이 잡신들을 총 동원하여 수마, 병마, 빙의신, 허주책쥐귀신들이 정신속에 숨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만들어 보증 싸움 이혼 투기 삼재 관재사고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을 **용천사 태일대사**만이 과학이나 의학이나 한방 양방에서도 모르는 귀신병을 입춘날 본인의 양말에다 방편하여 악운의 삼재와 질병및 흉살 고통을 빛으로 제도하며 재수대통으로 수화 병마 인마까지도 해탈되어 건강 사업 진급 학업 취직 결혼 장수 성취한다.

● 입춘불공기도 : 2017년 2월 1일 ~ 2017년 2월 5일까지
● 기 도 비 : 10만원〈삼재든 분은 1인당 33만원 양말과 함께 십원짜리동전 12개 꼭 준비함〉

현대의술도 잡지 못하는 삼시구충은 루진통만이 삼시구충을 제도한다.
삼시구충들은 동지부터 입춘까지 인간들의 오장과 육부와 육신에 파고 들어가 아프게 하며 각종 빙의신 허주신 등을 번식시킨다.

사람의 육신속에 각종병을 일으키는 삼시구충 병마귀신





일체종교가 하나로 되는 금강진법수육보영 | 천지공사 진광미륵달마 불선도 총본산 | 사)대한불교 달마조계종 용천사 환성태일대사